

“담배권 잡아라”... 신경전 치열

편의점 매출 절반 담배... 소매인 지정 위한 편법 찾아 담배권 우선권 가진 장애인과 매장 공동 개점사례도

‘담배소매인’ 지정(담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소비자가 담배를 사러왔다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유인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 담배권 확보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영업점에서 비장애인인과 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인 경우 담배권 경쟁에서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1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란 지자체로부터 지정 받은 소매인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소매점(편의점 등)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제주에선 지난 2019년 4월 담배소매점 간 제한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했다.

매장 간 거리가 100m 안의 영업점들은 단 한 곳만 담배권을 가질 수 있어 담배권을 얻으려는 업주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제주시 도련동에서도 100m 이내에 위치한 두 편의점이 담배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양동주민센터에 따르면 도련동에서 A사 편의점을 운영 중인 B씨는 장애인인 아내 명의로 삼양동주민센터에 담배권을 신청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 100m 이내에 새로 생긴 C사 편의점에서 장애인 명의로 담배권을 신청했다. 해당 C사 편의점 측은 일반 사업자 1명과 장애인 1명을 공동사업자로 두고 담배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담배권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의 중재에 따라 공개추첨이 이뤄

지는데,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있으면 이들(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을 우선 선정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삼양동주민센터는 우선권을 가진 두 사업자가 동시에 담배권을 신청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했고, 기획재정부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14일 담배권을 두고 두 편의점 간 공개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편의점 점주들은 매년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이 담배일 정도로 담배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담배를 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단골 확보에 영향을 받는다”며 “담배권을 얻어내기 위해 장애인 명의를 빌리거나 위성점포, 유통 슈퍼 등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의 가을하늘 맑은 날씨를 보인 12일 제주시 도두봉 정상에서 찾은 관광객들이 한라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10년 전 문헌 한·일·중 타임캡슐 열리나

제주 정상회의 개최 때 매설 3국 어린이 편지·엽서 담겨 외교부 “개봉 계획 검토중”

한국과 일본, 중국의 우정과 평화, 번영을 기원하는 3국 어린이들의 편지가 담긴 타임캡슐이 10년만에 개봉될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5월 제주에서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3

국 정상은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야외 조각공원에서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매설 행사를 가진 바 있다. 타임캡슐 옆에는 수령 30년, 4.5m 크기의 해상도 있었다.

원통형 스텐인리스 모양으로 만들어진 타임캡슐에는 2000년생인 한·일·중 3국의 당시 10세 어린이들이 3국의 평화와 번영과 우정을 기원하는 2020통의 편지, 엽서, 카드가 담겼다. 당시 타임캡슐 개봉 예정일은 편지를 쓴 어린이들이 20살이 되는 2020년이었다. 또 개봉과 함께 편지

를 쓴 어린이들 중에서 국가별 30여 명을 선발해 3국 협력에 관한 포럼을 갖고, 3년간 교차방문 기회를 가진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예정된 개봉 추진 계획과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12일 말했다.

한편 당시 타임캡슐 행사는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3국협력 비전 2020’ 채택을 기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특수 노려 원산지 속인 압제상술

지난 추석 기점 단속 결과 표시 위반 392곳 등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제주·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 7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연인원)을 동원해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1만445개소에 대해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표시 244, 미표시 148)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 미표시 2)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표시 16, 미표시 4)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 총 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 돼지고기 62건(14.0%), 쇠고기 40건(9.0%), 두부류 25건(5.6%), 닭고기 12건(2.7%), 떡류 12건(2.7%) 등의 순이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1건과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이 적발됐다.

또한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쇠고기)에 대해서도 총 1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대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다방업 5년새 35% 감소

제주시 소재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이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 기준 다방업은 55곳으로, 2015년(85곳)에 걸려 35.3% 감소했다.

다방은 2015년 85곳, 2016년 73곳, 2017년 66곳, 2018년 64곳, 2019년 59곳으로 해마다 조금씩 숫자를 줄였다. 한집 건너 하나가 커피숍일

정도로 커피숍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다방은 영업을 줄여 자연스레 문을 닫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내 다방업이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일부에서 영업을 벗어나 시간적 소외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영업이나 일부 단골 손님들에게 다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간혹 제기되기도 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오늘 기온 ‘뚝’... 내일까지 쌀쌀할 듯

13일부터 제주지역의 기온이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3일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15~17℃, 낮 최고기온은 20~23℃로 전날보다 1~3

℃ 낮을 것이라고 12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쌀쌀한 날씨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제주지역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초속 9~13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영향으로 해상의 물결이 1.5~2.5m로 높게 일겠다”며 “13일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다금바리·구문쟁이 ‘바다로’ 도, 이달 치어 4만마리 방류

다금바리와 구문쟁이 치어 4만 마리가 제주바다에 방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이달 중 제주시 김녕리와 서귀포시 사계리 연안 해역에 다금바리와 구

문쟁이 치어 4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산 다금바리와 구문쟁이는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횡감으로 여겨지고 있어, 자원량이 증가했을 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

터 시작해 현재까지 14년간 이들 어종의 자원조성을 위해 안정적 종자 생산 기술을 확립시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방류되는 다금바리와 구문쟁이 치어(5~7cm 크기)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부화 후 120일 정도 육상수조에서 사육한 것이다. 이태운기자

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숨결 지하수, 제주의 미래!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과 비양심적인 오염 배출로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했던 지하수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이용 가능한 양의 91%까지 지하수가 개발되었으며 일부지역은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 화학비료 과다 사용 등 오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지하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상수도, 농업용수의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도민 모두가 소중히 사용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줘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하며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일반인

상수도, 농업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하수 오염관리 및 물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숨결이며 제주의 미래입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